

제53호·2018년 1월 24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

물류동향

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, 금속 구조물 및 철강 생산 확대

- 아무로 힌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의 입주기업인 Biobidjanski 금속 구조물 생산공장이 생산을 확대시키기로 결정함
 - 2018년 상반기부터 소규모 농업을 위한 기계를 추가생산하기로 계획함
 - 이 계획은 농업에 특화된 유대인 자치주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, 약 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
- 또한 러시아철도청은 철강업 활성화를 위해 운임을 인하했음
 - 콤사몰스크 나 아무레 지역에 위치한 'Amurmetall' 공장에서 생산되는 철 스크랩(Ferrous Scrap)에 대한 운임을 26.4% 인하했음
 - 이러한 조치로 철강업체들은 필요한 수량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
 - 'Amurmetall'사(社)는 연간 최대 1백만 톤 규모의 철강 생산을 계획하고 있음
 - 또한 현재 극동지역과 동 시베리아 지역에 매년 22만 5천 톤의 철강을 공급하고 있음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2038/>(검색일: 2018년 1월 22일)
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2062/>(검색일: 2018년 1월 22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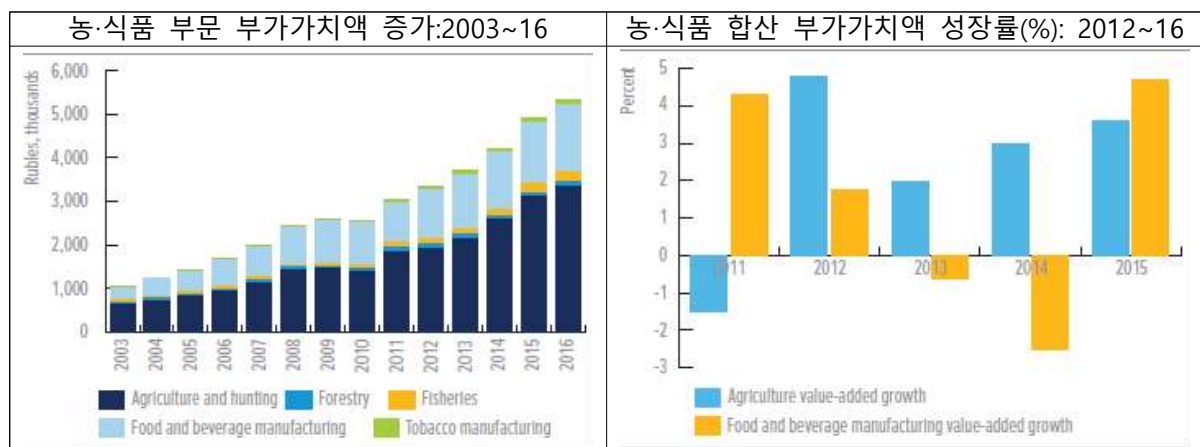
김엄지 연구원
051-797-4776, umjikim@kmi.re.kr

물류이슈

9브릿지(1) 농업: 러시아 농·식품 산업 경쟁력 동향과 향후 전망

-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작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, 농·식품 부문 세계 5위의 부가가치 생산과 세계 7위 해외직접투자(FDI)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임
- 러시아는 보리 생산량 세계 1위, 밀 생산량 세계 4위 및 세계 최대 수출국, 해바라기씨 생산량 세계 2위, 감자 생산량 세계 3위, 우유 생산량 세계 3위, 계란 및 닭고기 생산량 세계 5위 국가임
- 농업 부문 부가가치액은 러시아 GDP의 4.3%를 차지함
- 식품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액과 합칠 경우, 러시아 GDP의 6.3%를 차지함

<러시아 농업 생산액 증가 추이>



자료: Rosstat database.

- 농·식품 가공 부문은 러시아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액의 13.5%를 차지하나 러시아 전체 GDP의 2.0% 이하인 저발전 상태로, 농·식품 산업 현대화는 러시아 정부의 주요 정책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음
- 농·식품 부문 중 식량·음료 부문 제조업 부가가치액은 2013~201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2015년 4.7%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
- 이는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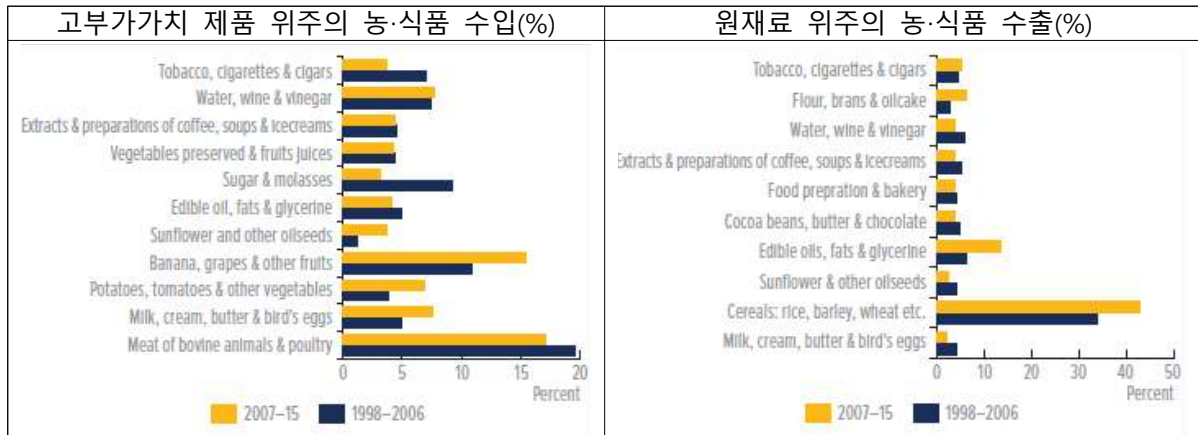


러시아 농·식품 부문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3가지의 '쇼크'를 경험하며 정책 전환 모색

- 첫 번째 쇼크는 2014년 6월~12월 루블화 가치 및 유가 폭락이 겹치면서 발생함
 - 루블화 가치는 동년 6월부터 12월 사이 전년 대비 46%로 수직 낙하함
 - 이 기간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급증했으며,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으로 변신함
 - 반면 농·식품 투입 및 기술 투자에 따른 비용이 급상승하여 농업 현대화 목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
- 두 번째 쇼크는 동기간 소득의 실질적 감소로 인한 농·식품 소비 감소임
 - 2014년 러시아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량 지출비가 38%까지 증가함
 - 이와 같은 식량 지출비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식량 이외 농·식품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으며, 이로 인해 농·식품 부문의 성장이 위축됨
- 세 번째 쇼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대러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 정부가 해당 국가들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면서 야기됨
 - 특히 이와 같은 러시아의 금수 조치는 신선 과일, 채소, 치즈 및 기타 낙농 제품의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
 -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었으며, 일부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여 오늘날에도 러시아 국내에서는 과일, 채소, 낙농제품 가격이 국제 수준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
- 2015~16년 러시아는 밀농사가 풍작을 거두어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으나, 수출 경쟁력의 제고 및 농·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에 직면하게 됨
 - 수출 품목이 곡물에 치중되어 있으며, 가금 식육류 및 가공식품 수출능력은 제한적임
 - 결론적으로 러시아 농·식품 부문은 일부 제품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, 고부가가치 농·식품 수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체적으로 러시아 농·식품 부문은 무역 역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
 - * 최근 수년간 러시아의 주요 수출 농·식품은 쌀, 보리, 밀 등 곡물류가 45% 내외로 비중이 높은 반면, 주요 수입품은 소고기 및 가금 식육류, 신선과일(바나나, 포도 등), 생수, 와인류 등 고부가가치 제품임
 - 러시아 농·식품 부문 주요 정책 과제로는 생산성 향상, 식품가공 및 제조의 확대 및 이를 통한 농산물 생산의 실질적인 부가가치 증대 등이 지적되고 있음



<러시아 농·식품의 교역 구조>



자료: World Ban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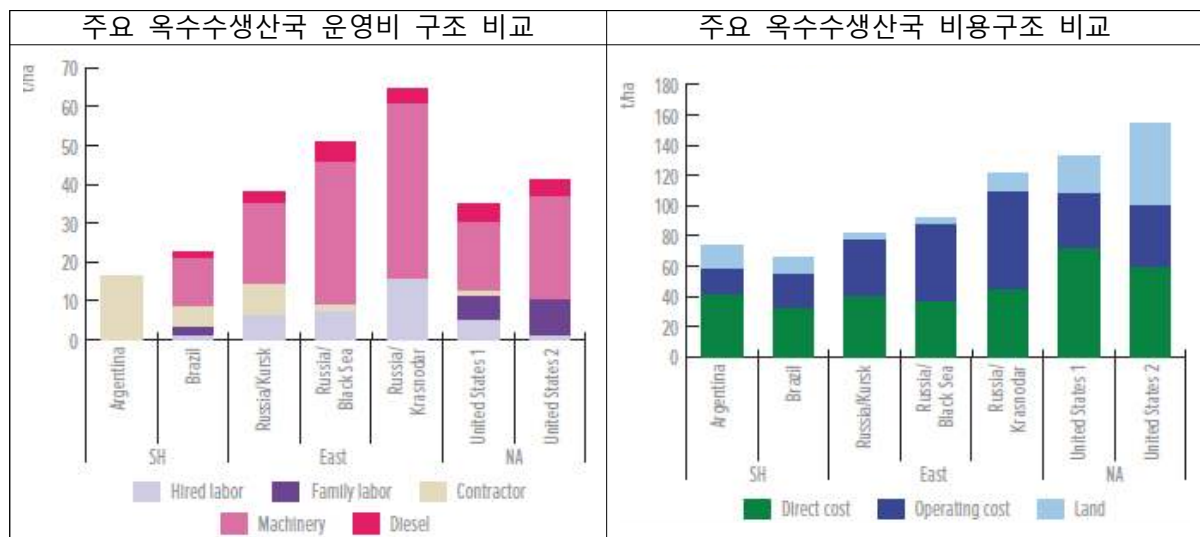
농·식품 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세계 7위국이나 생산성, 높은 운영비 등이 문제

- 러시아는 농업 분야 세계 10대 FDI 유입국으로 꼽히고 있음
 - 세계식량농업기구(FAO) 통계에 따르면, 러시아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FDI 유입 누적액이 약 2억 달러를 기록해 중국, 아르헨티나, 인도네시아, 브라질, 우루과이,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7위 FDI 유입국으로 기록됨
- 그러나 FDI 유입액의 상당 부분은 외국 관할권에 속한 러시아 기업 투자여서 순수한 외국 자본 투자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
 - 또한 식품 제조업 부문 FDI의 대다수는 단순 시장 추구형 투자로서 기술 이전 및 생산성 향상에 의한 낙수 효과(trickle down effect)를 거두는 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
 - 1차 농업 대비 러시아의 농·식품 가공업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'식품 제조업 부문 심도'(depth of the food manufacturing sector)에서, 러시아는 0.5 수준으로 세계 평균(1)의 절반에 불과하며, 우루과이나 그리스보다 수준이 떨어짐
- 러시아 낙농업 및 양돈업 등은 대부분 높은 인건비가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
 - 낙농업은 저렴한 토지 비용 등 대표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, 사료값 및 인건비가 높아 이들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 확보의 관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



- * 즉 낙농업 분야의 기계화 등에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
- 양돈업의 경우 사료값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물리적 노동 생산성은 독일·덴마크·캐나다 등 농업선진국에 비해 현격하게 뒤떨어짐
 - * 노동생산성은 독일 382.9kg/h, 덴마크 554.6kg/h, 러시아는 57.1kg/h임
- 옥수수의 경우, 재료비·직접노무비·직접경비 등 직접비(direct costs)가 미국 농가의 41% 수준으로 비교 우위에 있으나, 특히 기계 임대료 등 운영비(operating costs)가 상당히 높은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
 - * 전체적으로 미국보다 싸지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남미 경쟁국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

<러시아 옥수수농업 비용구조 국제 비교>



자료: World Bank

- 대두 농업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0.2%씩 성장한 신흥 농업 부문이나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음
 - * ha당 대두생산량은 러시아 1.0~1.5 톤으로 브라질(약 3.3톤), 아르헨티나(2톤 이상)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임
 - * 러 대두농업 가격경쟁력 하락도 경쟁력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운영비에 기인함



향후 한러 협력 및 국제물류 정책 시사점

- 러시아 농업 현대화는 러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면서 한러 '9 브릿지'의 하나임
 - 러시아 극동농업개발전략(2013)에 따르면, 극동 러 농업 경작지는 약 2백만 ha로 러시아 전체 1억1,500만 ha의 약 2%에 해당함
 - 극동 러 지역에는 현재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중공업 농장(최근 롯데그룹으로 매각), 아그로상생 등 7개 영농기업이 진출해 연간 5만5,000 톤의 곡물을 생산하고 있음
 - 연해주 진출 A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, 극동 러 농업 진출시 최대의 문제점으로 물류 시설 낙후로 인한 물류비 부담, 농자재 등 기반 시설 열악 등이 지적되고 있음
- 따라서 농업 부문 한러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이 요망됨
 - 기술 이전 및 생산성 향상 등 러 정부의 희망 사항에 맞는 투자 사업 발굴이 필요함
 - * 러측 농업부문에 대한 기존 해외투자는 단순 시장 추구형보다 기술투자 병행이 요구됨
 - 낙농업, 양돈, 옥수수, 대두 등 러시아 농·식품 산업은 값싼 토지 임대료 등의 강점이 있으나 기계·장비 임대료 등 운영비가 높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, 농기계·장비 현지화 및 수출, 부품조달 등 파생되는 화물의 운송 효율화를 통해 '원-원' 구도를 조성함
 - *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기계 및 현지화된 농기계 개발, 농기계 부품 시장 개척을 위해 연해주 지역을 '테스트 베드'로 활용해 시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
 - 신선 과일, 채소류 등에 대한 러시아 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, 향후 극동 러 지역에 온실 농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 - * 특히 화주·물류기업 동반진출을 위한 공동 시장 조사가 요망됨
- 농·식품 유통 과 원거리 수송 및 제3국 수출 위한 물류 기지로 항만 개발, 내륙 물류거점 확보 노력을 여타 9브릿지(항만 및 산업단지)와 공동으로 검토해야 함
 - 러시아 중부 및 서부, 중앙아시아와의 연계 및 중·러 접경지역 경유, 중국 동북3성 시장의 진출 방안 모색이 필요함

자료: World Bank, *Russia: Policies for Agri-food Sector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*, Dec. 2017.

박성준 전문연구원

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